

Lubetzky의 목록법 사상 연구*

A Study on Cataloguing Thought of Lubetzky

이 강산다정 (Kang-San-Da-Joeng Lee)**

초 록

본 논문은 현대목록법의 기초를 세운 Seymour Lubetzky의 생애 및 저술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사상 및 목록법 이론을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와 역사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시대적인 사회적,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국내·외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였으며, Lubetzky의 목록법 사상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Lubetzky의 도서관 및 목록법 사상을 도출하였다. Lubetzky의 목록법 이론은 목록원칙의 설계 및 서지적 관계 정립이다. 먼저 기술목록법의 원칙은 필요성, 단순성, 통일성, 일관성, 목적성, 상호연관성의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목록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서지적 관계는 지적 생산물인 저작과 구체적인 실체인 저서로 구분하는 것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또한 기본저록을 저자명 기준으로 기입하여 저작의 집중을 도모하였고, 저자명에 단체명과 무저자명을 포함시켜 저자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ame up a library thought and the theory of cataloging through analyzing the life and writings of Seymour Lubetzky who founded the principals of cataloging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ical social, ideological, and cultural context, using a literature survey and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Moreover, this study aimed a comprehensive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fragmentary studie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Lubetzky's thought of cataloging. Thus, this study found Lubetzky's library and cataloging thought. The theory of cataloging that analyzes the above findings is the design of cataloging rules and a bibliographical relationship establishment. First of all, the principles of descriptive cataloging should contain the necessity, simplicity, unity, consistency, fin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relations, and clarify the purpose of cataloging. The bibliographical relationship is built on dividing a work as an intellectual product into a book as a physical substance. Moreover, a basic entry is entered on the basis of author names for planning the concentration of works, and a corporate name and an anonym are contained in the author names for extending the concept of author.

키워드: Lubetzky, 목록법, 목록법 사상, 목록원칙

Lubetzky, cataloguing, cataloguing thought, cataloguing principle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박사(kangsanyi0@naver.com)

■ 논문접수일자: 2015년 8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9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9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32(3), 155-182,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155]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문자의 발달로 인해 구술로 전해지던 지식과 정보가 책의 형태로 응집되었고, 통치자와 재력가들의 수집품이 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지식자료를 수집하고 예술품, 귀중품과 함께 정리 및 보관하여 자산으로 여겼으며,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목록형태인 재산목록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고대의 Alexandria 도서관의 Pinakes와 같이 전기서지 형식의 목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재산목록 시대는 고대부터 중세의 수도원 도서관을 거쳐 16세기까지 지속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Naudé가 마자랭 도서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검색목록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초기의 검색목록은 주제별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알파벳순 목록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Panizzi, Jewett, Cutter가 성문화된 목록규칙을 발표하였고, 범국가적인 목록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세기 초에 영미계에서 목록규칙을 발표하였는데, 19세기의 목록규칙에 비하여 조문수가 급증하였고, 수많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목록의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록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실용적인 목록규칙의 개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Seymour Lubetzky는 Panizzi부터 ALA 목록규칙까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목록규칙의 수정방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목록규칙과 원칙(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이하 CRP)』, 『목록규칙

의 원칙(Code of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y, 이하 CCR)』과 『목록의 원칙: 기술목록법(Principles of Cataloging, Final Report, Phase I: Descriptive Cataloging, 이하 PCDC)』을 발표하였다.

Lubetzky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19세기 목록법 사상을 정리하여 20세기 목록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목록법 이론을 정리하여 현대의 목록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Lubetzky가 정리한 목록법 이론은 목록의 목적 확립, 기술목록법의 기능 발전, 기본저록의 문헌단위 기능의 국제표준 목록규칙으로 도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Lubetzky의 저술 『목록규칙과 원칙』과 『목록규칙의 원칙』에서 발표한 목록법 사상과 이론정립은 파리원칙에서 채택되어 근현대목록법의 국제표준화에 기여를 하였다.

현대 목록법인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와 『자원의 기술과 접근(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이하 RDA)』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목록법의 발전과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 목록법은 영미목록규칙에서 발전하여 국제표준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목록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영미목록규칙과 그 발전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발전과정에 영향을 끼친 목록사상가의 생애와 업적 고찰을 통한 목록법의 사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목록법 발전과정과 사상가의 연구를 비교한 결과 국내의 기존연구에서는 현대 목록사상가의 생애 및 업적 연구 또는 목록법 사상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었다.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단

편적이지만 다방면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목록법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관점의 목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목록사상가의 연구를 통해 목록법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대목록법의 기틀을 마련한 Lubetzky의 목록법 사상을 생애 및 업적 연구, 저술분석, 현대목록법 사상에 끼친 영향력 분석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현대목록법 사상 연구를 위하여 현대목록법의 기틀을 마련한 목록사상가 Lubetzky의 생애, 업적, 저술분석을 수행하였다. Lubetzky는 최초의 성문화 목록법인 Panizzi, Jewett, Cutter의 목록규칙부터 이후의 영미목록규칙을 분석하여 근대 목록법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목록법의 근간을 이루는 저술을 발표하여 그 원칙이 파리원칙에 채택되어 현대 목록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Lubetzky의 목록법사상이 현대 목록법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ubetzky의 전기적 연구자료 및 목록법 저술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그간의 단편적인 연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사상이나 연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Lubetzky의 도서관 및 목록사상 도출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학자들이 Lubetzky의 목록법 사상을 기술한 관점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Lubetzky의 전기적 연구, 목록법 사상 연구, 저술 분석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기적 연구는 Lubetzky 사

후에 작성된 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목록법 사상은 저술 분석을 통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저술 분석은 『목록규칙과 원칙』, 『목록규칙의 원칙』 및 『목록의 원칙』이며, 그 외의 저술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연구의 방법과 한계를 확인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Lubetzky의 생애와 업적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Lubetzky의 생애 연구를 통하여 19세기-21세기의 시대적, 사회적, 사상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 도서관학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 분석을 위하여 19세기 목록법의 역사와 주요 목록법의 내용과 의의, 목적을 조사하였다.

셋째, Lubetzky의 저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Lubetzky의 저술을 수집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그 성격에 따라 이론서, 규칙서, 평론서, 제안서, 기타서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저술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합한 분류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목록법의 접근방법과 Lubetzky의 기술 성격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다. Lubetzky의 저술 내용 요약 및 분석은 Lubetzky의 도서관 사상 및 목록법 사상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Lubetzky의 목록법 사상을 고찰하였다. Lubetzky의 도서관과의 인연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이 사상에 끼친 영향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실용주의 목록법을 주장한 Osborn의 목록사상을 조사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Lubetzky의 목록법 사상이 기능주의, 실용주의, 이용자 편의주의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연구에 바탕을 둔 문헌

연구와 역사적 연구 그리고 기존의 연구내용을 비교 연구하는 방법을 병용하였다.

1.3 선행연구

Lubetzky의 목록법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록학연구의 일환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태우(1997)는 『目錄法 理論에 대한 研究』에서 Lubetzky의 『목록규칙 및 원칙』을 분석하여 목록법 이론을 규칙의 일치성, 포괄성, 경제성의 원리가 추구된 것이라고 하였다. 목록의 실용성은 Cutter의 이용자 편의성(public convenience)의 이론을 계승하였고, Osborn의 실용주의적 이론과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이런 아이디어가 원칙성명에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목록규칙의 국제표준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창하(2007)는 박사논문인 『서양 목록법 이론 연구』에서 Lubetzky를 20세기 기술목록법의 가장 위대한 이론가라고 극찬했다. Lubetzky가 1953년에 발표한 『목록규칙과 원칙』을 분석하였다. 먼저 Lubetzky의 목록법 원리를 인정한 ALA 목록 및 분류 분과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저자 및 표제저록을 위한 목록규칙을 발표하여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ICCP)에서 채택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의 목록법 원리에 대해 Osborn의 원리를 적용시켜 목록법의 실용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목록법 이론은 규칙의 일관성, 포괄성, 경제성의 원리로 요약될 수 있으며, 원칙을 바탕으로 둔 기능주의와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의순과 손문철(1984)은 『英美目錄規則 發展의 史的 考察』에서 영미목록규칙 초판의 발전 과정에 기여한 Lubetzky의 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Lubetzky가 ALA의 요청으로 1949년의 목록규칙을 비평하였으며, 그 후 작성한 CRP가 파리원칙에서 채택되어 목록규칙의 국가적인 협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외에서는 Lubetzky의 생존 당시부터 그의 목록법 사상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Biswas와 Rath(2014)는 FRBR의 기원이 1595년에 Andrew Maunsell이 작성한 영어로 인쇄된 목록 책에서 저작단위(literary units)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단일표제 아래 저작단위를 집중하는 아이디어는 Andrew Maunsell이 다양한 판과 번역서로 된 성격에 통일표제를 사용하였고, 1674년 Thomas Hyde가 보들레이언 도서관 목록(Bodleian Catalogues)에서 해당 저자의 저작을 저작단위로 표제 연대순으로 배열되도록 구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Julia Pettee에 따르면 Hyde가 현대 목록의 첫 번째 원칙을 공식화 하였다. Hyde의 목록 사상은 Cutter의 사전체 목록규칙에서 극대화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Lubetzky가 이런 목록 사상을 분석하고 받아들여 정립한 목록 원칙이 파리원칙에 받아들여졌다. 파리원칙은 AACR과 FRBR에 영향을 끼쳤으며, FRBR의 구조화된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저작단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목록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

였다.

Campbell과 Fast(2004)는 웹 검색엔진과 웹 기반의 OPAC의 탐색적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이론에 Panizzi와 Lubetzky의 목록법을 비교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비교대상으로 사용한 웹 검색엔진은 Google이다. 관찰과 설문문을 통한 연구방법으로 대학생들의 검색 행태를 조사하고 지식 구조의 이론을 교육한 뒤 검색 행태를 비교하여 검색 결과의 정밀도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OPAC이 검색의 시작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실패한데 반해 구글의 시스템은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OPAC이 전통적인 목록의 이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Google이 Panizzi와 Lubetzky의 이론에 표현된 목록의 목적과 일치함을 보여준다고 현대 OPAC을 비판하였다.

Svenonius와 McGarry(2001)는 『Seymour Lubetzky: writings on the classical art of cataloging』에서 Lubetzky의 목록사상이 담긴 대표저서를 선별하여 그 원문과 편집자들의 논평을 함께 실었다. 이 저작은 Lubetzky의 목록사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상세히 분석한 저작이다. Lubetzky의 생애에 관한 서문과 25편의 논문을 편집자들의 평론과 함께 편집하였다.

Connell과 Maxwell(1998)은 1998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의 발표 자료를 편집하여 『The future of cataloging: insights from the Lubetzky symposium』를 편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Michael Gorman과 Michèle V. Cloonan이 목록법의 역사와 Lubetzky의 기여 파트를 맡아서 발표하였고, 현대 목록법연구에서는 Martha M. Yee가

Lubetzky의 저작 원칙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Gorman(1998)은 Lubetzky의 목록법 원칙에 대한 발표를 했다. Panizzi부터 AACR2까지 미국의 목록규칙의 변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목록의 목적에서 기능으로 용어의 변화와 책과 저작을 구분한 Cutter와 Lubetzky의 업적에 대해서 AACR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Cloonan(1998)은 과학이 목록법에 끼친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미국의 국가 정보 구조에 영향을 준 사람을 Vannevar Bush와 Lubetzky라고 소개하면서 Bush와 Lubetzky가 정보에 접근하는 검색에 관한 상호보완적인 존재였으나 접근법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조직하는 여러 그룹 중 하나인 도서관은 Web의 발달로 인해 위협에 빠진 것처럼 보였으나 Web의 반대급부로 인해 오히려 사서의 전통적인 전문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목록체계의 장점이 검색엔진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절약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보 조직에 사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Panizzi와 Cutter가 19세기에 발명한 원칙과 Lubetzky가 20세기에 발명한 원칙과 방법론을 철저히 고수하여 이용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ee(1998)는 Lubetzky의 저작 원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Yee의 연구에서 저작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저록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이다. 기본저록은 알파벳순 목록의 목적인 저자의 모든 저작과 저작의 모든 판을 함께 표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에 대하여 AACR2R의 분석을 통해 Lubetzky의 목록의 원칙이 저작

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고, OPAC 설계에서 Lubetzky의 저작 원칙이 빠진 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2. Lubetzky의 생애

세이머 루베쯔키(Seymour Lubetzky, 1898-2003)는 1898년 4월 28일 Poland의 도시 Zelwa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 Chaim Isaac Lubetzky와 Blume Ratner Lubetzky는 유대인이었으며, 슬하에 2남 2녀가 있었다. Lubetzky는 유년기와 학창시절에 문학을 읽으며 학문에 관한 기초과목을 중점적으로 수학하였고, 특정 행동에 관한 이유를 찾는 법을 배웠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문의 다양한 측면의 의문점을 해결하였으며, 과학과 수학 Gymnasium과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Carpenter, 1998).

그는 Tarbut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교사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후 교사로 활동하였다. Lubetzky은 교직생활 동안 문학과 언어 연구에 집중하였으며, Poland에서 최고의 교사로 인정한다는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Lubetzky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디시어(히브리어), 러시아어, 폴란드어에 능통할 수 있었다(Svenonius, 2001). 그렇지만 사회 및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 택하게 되어 교사생활을 접게 되었다.

1928년에 Southern Branch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1933년 이후 UCLA로 개칭, 이하 편의상 UCLA로 통일)에 등록을 하고 전공 과목으로 독일어를, 부전공으로 프랑스어, 심리

학, 음악, 교육학을 이수하였다. 1931년에 UCLA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후, 문학자로 학술직에 종사하기 위해 다시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이하, UC Berkeley)에 입학하였다(Carpenter, 1998). 1932년에 독일어 석사학위와 일반 중등교사 자격(General Secondary Teachers Credential)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대공황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자리 모색을 위해 UC Berkeley의 도서관학장인 시드니 미첼(Sydney B. Mitchell)과의 면담을 통하여 UCLA 도서관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California에서 베아트리스 샤르나스(Beatrice Charnas)와 결혼하여 LA에서 머물면서 사서직의 취업에 집중하였다. 임시직에 있다가 1936년에서야 UCLA의 도서관 연속간행물 부서에서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옌스 나이홀름(Jens Nyholm)을 만나게 되었는데, Nyholm은 UCLA 도서관에서 목록부서의 수장으로 도서목록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Lubetzky가 목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Nyholm은 Lubetzky에게 편목 부서로의 이동을 권유하였고, Nyholm의 부하직원으로서 일을 시작했다. 후에 Nyholm은 Lubetzky의 평생의 멘토가 되었다. UCLA에서 Nyholm의 권유로 인해 목록을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제출 하고, 세 번째 논문은 Lubetzky가 편목부서의 업무 중에 생긴 문제점을 토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국가 시책으로 1942년에 UCLA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고, Sydney Mitchell을 방문하였다. Mitchell과는 진로전환의 시기에 그에게 도움

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진로 문제로 방문한 것으로 추측된다. Mitchell은 Lubetzky를 위해 의회도서관의 처리부서(Library's Processing)의 수장인 허먼 헵클(Herman H. Henkle)에게 소개서를 써주었다. 그리고 이 소개서로 인해 의회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쟁 중에 Mitchell의 소개서를 받은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의 책임자인 Henkle은 1941년에 생성된 ALA 목록규칙 초안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자를 찾고 있었다. Mitchell로부터 소개서를 받은 Lubetzky의 대문자활용과 표제 추가 기입방식에 관한 저서인 『목록자의 부담(Capital Punishment for Cataloger, 1940)』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실용적인 논리의 저자가 목록규칙의 복잡성을 해결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Lubetzky를 LC로 초청하였다. 이리하여 Henkle은 Lubetzky의 세 번째 멘토가 되었다(Svenonius, 2001). 이로써 Lubetzky가 목록 전문직으로서의 두 번째 기간을 의회도서관에서 17년간(1943-1960) 재직하게 되었다. Lubetzky의 주요 업무는 목록규칙에 관한 연구였다. 이 기간 동안 Lubetzky는 Panizzi부터 목록규칙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서 및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Lubetzky는 목록규칙의 개정을 유도하고 그의 학술적 분석과 비평에 대해, 그리고 장래의 목록 정책을 위한 기반으로서 분명한 원칙의 틀을 이끌고 있는 공로로 1955년 마거릿 만 표창(Margaret Mann Citation)을 수상하였다.

1956년에는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세우는 위원회인 목록규정 개정위원회의 편집장(Catalog Code Revision Committee)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새로운 목록규칙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목적, 문제, 원칙'이라는 강령을 정하여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결과는 초안 규칙이라고 부르는 『목록규칙: 저자와 표제저록』이다. 이 연구 과정에서 생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타협 문제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었고, Lubetzky는 명목상의 직위만 유지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목록 교수직의 요청을 받아 모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Lubetzky는 1960년 UCLA에 새로 신설된 도서관 서비스 학교(School of Library Service)에서 계약기간 5년의 교수로 채용되었다. 5년이 종료되자 4년의 기간연장 요청을 받았고 이 기간 중에 활발히 저술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수직으로 옮긴 후에도 여전히 Lubetzky는 1956년부터 맡은 목록규정 개정위원회의 편집장이었다. 그는 1961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CCR을 수정된 목록규칙으로 제안하였다. 파리원칙으로 수용된 목록규칙의 개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위원회를 이끌었으나 원칙의 타협과 비용에 대한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다. 2년 후에 결국 행정적인 문제에 한계를 깨닫고 목록규정 개정위원회에서 물러났다.

Lubetzky의 교육은 방법론적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배경도 뚜렷했다. 특히 목록의 구성 과정을 가르쳐서 주어진 목록 규칙의 다양한 활용과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독려했다. 도서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존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방식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수업을 한 결과 Michael Carpenter, Elaine Svenonius 등 목록 분야의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했다.

Lubetzky는 뛰어난 교육자로 인정받아 1965년 1월 23일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ibrary Schools)에서 수여한 베타 파이 뮤(Beta Phi Mu)를 수상했다. Lubetzky의 목록 강의방식은 그가 학교를 떠난 후 30여년 동안 UCLA에서 지속되었다. 목록 규칙에 대한 분석과 목록에 대한 이론정립적 방법에서와 같이 Lubetzky의 교육 방식은 그가 떠난 후에도 목록의 훌륭한 교육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8년 그는 도서관 서비스 학교를 은퇴하였고, 그 공로로 이듬해 1969년 캘리포니아 대학 평의원단(University of California Regents)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Svenonius, 2001).

1969년 교직에서 공식 은퇴를 하였고, 은퇴 후에도 Lubetzky는 계속해서 목록규칙의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1969년에는 미국연방교육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아 『목록의 원칙 최종보고서 1단계: 기술목록』을 발행하였다. 이 저서는 기술목록에서의 문제점, 목적, 원칙을 검토한 글이다. Svenonius는 이 보고서를 “Lubetzky의 확고하고도 성숙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전에 사용했던 어떠한 것보다 웅변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Lubetzky의 정수이기도 하다”고 표현하였다(Svenonius, 2001). 이외에도 목록개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된 회의에 수차례 요청을 받고 연설을 하였다. 또한 자신의 100회 생일 행사에서는 21세기 목록의 미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Lubetzky는 기본저록 개념이 그의 이론 접근방식의 핵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즉 목록의 저작 집중의 목적뿐만 아니라 저서와 도서 사이의 구

분을 이해하지 못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목록에 불필요한 중복이 반복 도입되는 방법론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국제표준서지기술(International Standard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이하 ISBD)과 컴퓨터 파일이 목록의 한 저자의 저작이나 저작의 다양한 표현물을 집중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오류와 같은 내용을 비판하였다. 목록과 서지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7년에는 Melvil Dewey상을 받았다(Bruin, 2003). 그의 104번째 생일 전, 2002년에 미국도서관협회는 그에게 가장 높은 명예인 명예평생회원을 수여하였다.

Lubetzky는 2003년 4월 5일 LA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아내 Beatrice Charnas Lubetzky는 47년 전 1981년에 사망하였다(Grieg, 2003). Lubetzky의 가족은 리처드(Richard), 데이비드(David) 두 아들과 David의 아들 대런(Darren)이 남았다.

3. Lubetzky의 목록법 원칙 분석

Lubetzky의 목록원칙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일한 목록규칙서인 『목록규칙의 원칙(CCR)』과 목록규칙의 원칙을 표명한 두 편의 이론서 『목록규칙과 원칙(CRP)』과 『목록의 원칙: 기술목록법(PCDC)』를 분석하였다. Lubetzky가 주장한 목록의 원칙은 ALA 목록규칙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규칙의 당위성, 포괄성, 일관성 등의 성격을 지닌다.

3.1 목록규칙과 원칙(CRP)

『목록규칙과 원칙(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이하 CRP)』은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는 ‘이러한 규칙은 필요한가?(Is This Rule Necessary?)’이다. 이 질문은 목록규칙의 당위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원칙을 고수하지는 의미를 내포한 질문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첫째, 모든 규칙이 필요한 것인가?

둘째, 모든 복잡한 것들이 불가피한 것인가?

셋째, 우리의 규정에 통합성과 목적성을 부여해주는 근본적인 안이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원칙을 대변하는 것으로, ALA 목록 규칙을 하나씩 분석하여 복잡한 규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필요한 규칙만 남기는 단순성을 지향한다. 또한, 원칙을 세움으로써 목록규칙의 역할을 명시한다. 이 세 가지의 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은 경제성의 원리라고 불리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방식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을 최소화하고,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Lubetzky는 ALA 목록규칙을 1조부터 41조까지 하나씩 서지적인 필요성을 판단하여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삭제하여 새로운 목록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초석을 세웠다. 여기서 적용한 기준은 규칙의 필요성, 목록규칙 간의 연계성, 목적과 원칙의 일관성 세 가지다. ALA 목록규칙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불필요한 것이

며, 규정 내의 다른 규칙과의 적절한 연관성이 부재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Lubetzky는 기본 항목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작업은 서지정보 기입 시에 필요하지 않은 표제지 정보를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Lubetzky는 편목의 간결성을 주장하였고, 식별자를 제공하는 규칙에서 필요 없는 요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저자, 형태 등의 현대와 같은 기입요소를 규정하였다.

규칙의 저작성은 개인저자, 단체저자, 공동저자, 복합저작, 전집의 정의를 설명하고, 구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저자는 각각의 저자 기여도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내용은 파트별로 구분된 형식의 두 명 이상의 저자라고 하였다. 복합저작은 사전에 기획된 한 개의 단일저작 속에 들어있는 형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둘 이상의 저자 협업으로 각자의 기여가 구분된 파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원작 형태로 규정된 단일 표제로 구성된 저작이라고 설명하였다. 개별적인 3개 이상의 저작을 전집으로 규정하였다.

저작의 특수유형을 서신문, 탐사문, 비문, 필사본, 라디오대본 등으로 제안하였다. 특수유형의 저작의 경우 저자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주저자와 참여저자로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작과 저자의 규칙 사이에 유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수유형의 저작은 기혼 여성, 종교인의 명칭, 귀족과 공직자의 신분이나 관직명을 규정에서 다루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자의 대표 저작 또는 저자의 이름으로 한정하거나 종교인의 칭호와 같이 신분확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시켰다. Lubetzky는 이 기준들의 사례

를 분석하여 편목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목록 규칙의 명확성과 통일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칙에 적절한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규칙에 나타난 다중성의 축소 여부, 복잡성의 최소화, 불가피한 난점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목록 작성과정에서 생성되는 목록자의 판단을 줄여 일관된 통일성을 분명히 하도록 주장하였다.

목록규칙의 단순성과 통일성은 Lubetzky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이런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줄리아 피테(Julia Pettee)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Pettee는 목록 규칙의 개발을 위해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규칙에 일관성이 없고, 사소한 규칙들이 늘어났다고 비판하였다. 현장에서는 통일성 있는 기본원칙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기본 원칙의 성립이 수많은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규칙들을 제거하여 목록 규칙의 단순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ettee, 1936). Lubetzky는 Pettee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제2부 “단체명의 복잡성(The Corporate Complex)”에서는 목록 규칙의 가장 난제였던 단체저록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기존의 단체저록을 분석하기 위하여 Jewett 목록규칙, Cutter의 하버드 대학도서관 신구목록, RDC 초판에서 4판, Hanson의 단체저록에 관한 규칙, AA Code, ALA 목록규칙을 채택하여 단체기입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복잡성을 입증하였다.

Lubetzky는 이 연구를 통해 Jewett 목록규칙에서 취급한 단체저록 기입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고 평가하였다. Jewett은 단체명을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기입하고, 장소명을 부기하였다. 이 방법은 프레데릭 피노(J. Frederic Fino)

와 몬티머 토브(Mortimer Taube)가 추천한 방법이기도 하다.

Lubetzky는 사회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장소를 기준으로 기입하는 관행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첫 단어를 기준으로 사회단체명을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칙은 장소를 기준으로 기입하는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Lubetzky는 사회단체와 기관의 합리적인 기술규칙을 세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Osborn, 1947).

Lubetzky는 상기 6개의 목록규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Cutter와 Hanson은 사회단체와 기관 사이의 차이를 실제 구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둘째, 특징적 명칭은 단체명을 기준으로 기입하고 일반적 명칭은 소재지명으로 기입하도록 구분하였다. 1908년 ALA 목록규칙을 보면 Hanson의 의견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LC가 제시한 정의가 채택되었다. 목록자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의로 실용적인 규칙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윌리스 라이트(Wyllis E. Wright)가 “기관들은 잘 구분되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장소를 기준으로 한 저록은 몇몇 동질의 성격을 갖는 기관들의 이름 기준 저록방식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준다(Wright, 1938)”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의 “사회단체와 기관의 구분이라는 이면의 실제 요인은 박물관, 교회, 병원, 동물원 같은 다수의 흔한 명칭의 기관들이 뚜렷이 특징적인 명칭을 갖고 있지 않다(Ranganathan, 1938)”는 의견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단체와 기관의 구

칙을 구분하여 규칙의 실제 목적이 그릇되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자격을 갖는 단체들이 다르게 취급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단체저록의 문제점은 세세한 상황을 고려할 점이 많았으며, 목록자의 관습도 다양했다. 이런 고찰을 통하여 Lubetzky는 단체저자를 개인저자와 동일하게 생각한 Cutter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Jewett의 저록작성방법을 차용하였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단체저록에 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부 “규정에 대한 설계(Design for a Code)”에서는 목록의 목적에 맞는 기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저작물 형태를 기본으로 규칙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LA 규칙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목록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규정의 단일성은 무너졌으며, 목적의 일부는 변경되었다. 일부 규칙을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고려한 점은 필요성, 다른 규칙과의 연관성, 원칙성 등이다. 일부 규칙을 분석한 점은 “모든 규칙을 다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된 규칙에 있어 충분한 경우의 수와 다양성을 분석하여 우리의 규정이 원리와 구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목록 저작의 합리성은 규정이 규칙의 목적을 정의해주도록 선택한 대상과, 규정의 패턴과 특성을 설명하도록 고려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완전하게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목적과 시사점, 목록의 조건과 원칙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어떤 점이 목적과 원칙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목록의 목적과 시사점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저록

규칙에 내포된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이용자에게 자료의 소재지시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명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첫째로 검색과 식별로 소재지시를 해주고, 둘째는 저자명 형태의 전거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전거기능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Lubetzky는 전거기능에 대하여 목록에 대한 단일성, 효율성,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전거목록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재고한 해안이 있었다.

목록의 조건과 원칙에서는 원칙과 규칙이 설계되는 자료를 조사해 보고 이때 나타나는 상황들을 분석하였는데, 기본조건과 원칙, 변이조건과 원칙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도서의 저록에 있어서 저자명과 표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며, 기본저록으로 저자명을 기준으로 기입하면 저작과 다양한 판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서의 소재파악이 목적이라면 표제, 연속간행물의 표제, 주제, 기타 저록을 부출저록으로 작성하여 단위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자가 여럿인 경우, 표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저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 기재하면 목록의 목적이 최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안된 과정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다. 목록 저작상의 문제는 다수 저자의 이름순으로 몇 개의 권, 혹은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된 경우 그때 마다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일 저작상의 문제는 단위 저록을 위주로 하는 저록사용 방식에서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목록 저록에 다른 저자들의 각각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표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저록 또

는 단위저록의 첫 번째 저자 이름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안한 원칙들은 목록자가 자신의 편리성에 맞추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무명 단체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목록자는 자신이 찾아낸 그대로 단체를 취하거나 단체 이름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의 성격이 복잡하므로 원칙을 세워 단체저록에 대한 규칙 과정을 수정해야 하며 규칙의 적용을 반드시 지시해 주어야 하며, 목록기준의 중요성을 원칙의 적용을 촉진하는 도구이자 나침반 같이 방향제시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부는 ALA 목록규칙 수정2판을 단체에 관한 목적과 기능분석을 위하여 ① 단체저작의 문제점, ② 전반적인 ALA 규칙 분석, ③ 규칙 수정의 근간이 되는 목적과 원칙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였다.

제4부는 질의 및 응답으로 일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였다. 수정비용, 기본저록의 가치, 저작권 원칙과 양식의 표제부분, 원칙과 규칙, 목록 수반비용, 국제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수정비용은 보고서에서 제안된 원칙의 채택으로 인해 목록이 변경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우려이다. 이에 대하여 비용수반의 변경 대신, 제안된 원칙들의 수용이 불필요한 복잡성과 비일관성을 제거함으로써 단체의 목록 저작상의 비용을 감소하도록 도출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기본저록의 가치는 개인 저자와 단체 저자의 문제점을 다룬다. 이에 대해 Mudge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본저록의 문헌단위 기능에 대한 저

작의 집중효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본저록은 목록에 있어 유용한 특징으로 남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저작권 원칙과 양식의 표제부분은 목록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목록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목록 원칙들은 목적이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지시사항들이다. 목적들은 도서관 구성원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원칙이나 지시사항은 이러한 목적이 변화하는 서지학 환경에서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도서의 저자와 표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저자명을 기준으로 저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표제기준으로 저작을 기입하는 것이 목록의 목적에 부합되는 근본 방법이라고 답변하였다.

원칙과 규칙은 질의응답자 중 한 사람이 원칙은 논리적이지만 이정표 방식으로만 되어있다는 비판에 반박하였다. “실용적, 논리적, 일관적”인 규칙으로 된 완벽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의 실용성 기준이 되는 목적, 또는 논리적 유효성에 맡겨야 할 관련 고려 대상들의 논의, 또는 일관성을 담아내야 할 기본 원칙 형성에 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록 규칙의 수정요구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안된 원칙들이 목록의 경제성 도모에 유익할 만한 점이 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였다. 제안된 원칙에 근거한 규정은 구조면에 있어 훨씬 간단하여 이해와 적용이 쉬워서 목록은 논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덜 들 것이다. 그러나 목록의 경제성 여부는 목록 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목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규칙에 동의하고 목록 비용에서 그 대가를 치르자.”고 주장하였다.

국제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국제적인 수용이 가능하도록 목록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32년 4월, New Orleans Conference의 목록회의에서 Hanson의 의견을 인용하여 목록규칙의 국제적인 협력이 이전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으며, 이 제안이 국제적인 이해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3.2 목록규칙 초안(CCP)

『목록규칙: 저자와 표제 저록(Code of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y, 이하 CCR)』은 “초안규칙”이라 알려지게 되었는데, ALA 자료 및 기술 서비스 부처의 목록규칙 개정협의회에 제출된 제안서로써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규칙 개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한 다른 연구물들과 함께 제출되었으며, 1958년 7월 9일-12일에 개최된 스탠포드 목록규칙 재정 기관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 Cutter의 목록에 관한 목적에 ‘저작’의 개념을 포함시켰으며, 원칙으로의 회귀를 선언하였다.

이 절에서 사용한 자료는 1963년에 연세대학교 이재철 교수가 번역한 번역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용어는 현대적인 용어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목록규칙의 의도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 취급된 자료의 본질과 추구되는 목적, 사용 방법, 개제된 문제와 일반원칙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의 본질에서 자료의 영역을 도서, 필사

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악보, 녹음자료로 분류하였다. 자료를 고려할 때, “자료는 저작의 판 또는 표현물로 저작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저작이 여러 가지 다른 형식과 다른 매체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므로 한 도서관에서 동일 저작에 대하여 다른 이름이나 다른 표제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목록규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1) 도서관이 저작의 특정 판이나 표현물을 소장하고 있는가
- (2) 도서관이 주어진 저작의 특정 판이나 표현물을 소장하며, 주어진 저작의 어떤 저작을 소장하는가

두 가지 목적 모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의 특정 판과 표현물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저작의 이름을 표목으로 하여 집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명과 표제로 기입하는 것을 권했다. 그리고 저작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정어를 부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런 방법은 한 저자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한 저작이 다양한 표제로 표현되었을 때 목록규칙의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대하여 Lubetzky는 여러 판들을 각각의 표제로 기입하고 주기를 달거나 부출저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저작물의 한 가지 판이나 표현물에 대한 기입은 저작으로 기입할 것인지 표제로 기입할 것

인지 문제가 생긴다. 저작의 집중을 위해 일반 원칙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1.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저작되거나 책임이 있는 저작은 개인 또는 단체 이름으로 기입한다. 복수저자, 저자 미상의 경우 표제로 기입한다.
2. 두 개 이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자는 그의 저작에서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이름과 형식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더 잘 알려진 이름이 있거나 서지정보 또는 참고정보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입한다.
3. 성을 가진 인명은 성으로 기입하고 접두어를 가진 성은 그 저자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기입한다. 단체명은 저작에 나타난 형식으로 기입한다.
4. 동명이인의 개인명은 생몰년, 또는 저작이나 참고정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칭호에 의해 구별한다. 단체명의 경우 소재지명, 설립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정어로 구별한다.
5. 다양한 표제로 발행된 저작과 한 저작의 여러 번역판은 도서관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외에도 기입의 원칙은 표제지이며 저작의 기입에 표제지의 오류가 있는 경우 목록자의 판단에 따라 적당한 안내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목록의 규칙과 정책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위한 목록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안(alternative)이 필요한 곳에 마련하여 도서관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채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CCR의 중요 특징은 3P에 관한 기사문에서

찾을 수 있다. 1) 목록의 목적(purposes), 2) 목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problems), 3) 목록 생성 시 따라져야 할 원칙(principles). 이 언급은 현대 규칙 작성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CCR 중 일부가 이하에 재 판되도록 선택된 것이다. 목록 규칙 안의 이와 같은 언급에 관한 필요성은 Lubetzky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항이며, 40년 이후 그의 마지막 연구에서 그가 원칙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기도 하였다.

CCR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를 개인저자, 단체저자, 정부간행물, 저자미상 등 네 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 중 네 번째 기본유형인 저자미상, 저자복잡, 또는 저자가변성 저작물은 통일표제를 정하는 항목으로 61조-69조까지 다루었다.

통일표제와 관련한 조항은 62조의 네 번째 무저자명의 번역본에 관한 규정과 불교경전만 수정하고 다른 조항은 ALA 목록규칙과 거의 일치한다. 이 규칙은 거의 그대로 AACR 초판에 반영되었다.

통일표제와 형식표목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장 중 101조-103조까지 표제의 선정과 형식에 대하여 적혀있다. 101조는 1500년 이후에 쓰여진 저작에 대한 규정, 102조는 1501년 이전에 쓰여진 저작에 관한 규정, 103조는 표제가 없는 무저자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AACR에 영향을 주었다.

CCR을 받아들인 『편목원칙에 관한 원칙성명』은 모두 12개조 30개항 3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부(general part)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1조부터 제7조까지 7개조 12개항이고, 표목부(specialized part)에 대한 핵심적

인 규정이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5개조에 18개 항목이다.

총론부에서는 편목원칙에 대한 명시와 목록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중 목록의 기능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한 도서를 저자명이나 서명으로 검색하기 위한 도구(IFLA, 1961)”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목록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1. 도서관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특정도서를 가지고 있는가?
 - (a) 저자와 서명에 의하여
 - (b) 저자가 도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 (c) 만약 저자와 서명이 식별하는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서명을 대응할 만한 대응어로
2. 도서관에는
 - (a) 특정저자의 저작물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 (b) 특정 저작의 어떤 판이 있는가?

표목부에서는 8조부터 12조까지 단일저자의 저작, 단체저자의 저작, 복수저자의 저작, 서명 기본표목, 개인의 인명에 대한 표목어로 구분하여 표목으로 선정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파리회의에서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목록의 기능, 기본저록과 부출저록의 역할, 단체저자의 범위라던가 법률, 조약 등의 취급, 무저자명도서와 통일서명, 연속간행물의 개제(표제의 변동)의 취급, 저자명 형식의 선정과 필명에 대한 조치 등이었다. 즉, 표목의 국제적인 통일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ICCP의 목록규칙에 관한 표준안 제정 노력

과 결실은 목록의 표목부에 관한 세계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실의 여파는 각국의 목록규칙 제정 혹은 개정에서 이들 원칙이나 표준안이 채택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합의된 것은 이후 참가국의 목록규칙을 표준화하여 세계에서 지제어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ICCP의 결의안을 수용하여 영미목록 규칙 초판이 제정되었다.

3.3 목록의 원칙: 기술목록법(PCDC)

Lubetzky는 은퇴 후 『목록의 원칙 최종보고서 1단계: 기술 목록(Principles of Cataloging, Final Report, Phase I: Descriptive Cataloging, 1969)』을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Lubetzky는 목록의 원칙이 목록 규칙을 구성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 제안하였다. 특히 목적과 문제점들, 그리고 원칙들에 집중하면서, 1966년 소개된 영미 목록 규칙으로 이어진 발전 사항들을 재조명하였다.

제1부는 도서관의 저자-표제 목록에 대하여 도서관에서의 목록의 역할, 목록의 일반적인 역할, 목록의 목적들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다. Lubetzky에 따르면 목록화의 문제점은 저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도서와 저작의 구분을 통해 이용자는 그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게 해줄 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최고의 서지학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문제의 한 단면이다. Lubetzky는 목록의 기능이 Panizzi나 Cutter가 주장한 검색 도구나 참조도구가 아닌, 서지학적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Lubetzky는 기술목록법을 작성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 목록자가 따를 수 있는 지시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편목을 더 신속히 하기 위해
- (2) 도서관 자료를 통일되고 일관되게 다루기 위해
- (3) 도서관들 간의 서지적 협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지적 목록작성의 경제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목적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서비스에서 목록의 역할과 도서관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목록의 일반적 기능과 목록의 역할을 감안할 때 달성해야 할 특정 목적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목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3가지 기본 기능이 있다.

1.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의 선택과 취득
2. 취득한 자료들의 목록 준비
3. 자료들의 이용에 따른 보조 및 도움 제공

목록의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 때, 목록의 특정 “경제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Lubetzky는 특히 “중앙집중형 목록편성 혹은 협조적 목록편성의 경우에 기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적절한 경제성이 한 번에 여러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록의 일반적인 기능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용어만 변화되었을 뿐, 목록의 기능은 여전히 “검색”과 “참조도구”였다. 그러나 도서관의 장서량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현

실에서는 도서와 저작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했다. 목록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도서관의 서지학적 기능”을 배경으로 목록을 검토하여 목록의 목적을 공고히 하였다. Lubetzky가 주장하는 목록의 목적은 “첫째, 특정출판물이 소장되어있는 위치를 알리는 것이고, 둘째,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의 저자의 저작들과 다양한 표현형태의 버전을 함께 연계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Cutter의 “목적들”과 새로운 영미목록규칙을 준비하면서 진화한 목적들 간에 차이점은 구 규칙과 새로운 영미목록규칙간의 근본적 차이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Lubetzky는 제1부에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목록의 목적을 정리하였다.

제2부는 저록과 기술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기본저록의 활용과 기능, 저작성의 원칙, 목록편성의 과정과 문제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Lubetzky가 발견한 AACR1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목록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을 택했다는 점이다. AACR1은 목적을 결정하고 목적이 불리일으키는 질문들로부터 출발한다.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검토 및 도서에 관한 검토는 효율적인 목록은 반드시 소재지시와 서지적 기능의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저록의 요소들이 배치됨으로써 다수의 저록이 생겨야 하는 것인지, 기본저록으로써 하나의 저록만 이용하여 모든 필요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논하였다. 기본저록의 중요성은 하나의 완전한 기본저록을 사용하고, 참조도구대신 부출저록을 구성하기 위해 기본저록을 단위저록으로 사

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Lubetzky는 기본저록은 체계적으로 건설된 목록의 서지적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경제성과 기능성의 이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본저록은 저작과 저작의 다양한 판 및 번역본을 저작명 기준의 기본저록들 하에서 함께 나타내며, 편집자, 번역가, 주제 등에 따른 부출저록에서도 이들이 단위저록으로써의 기본저록에 근거하여 있으면 함께 나타낼 수 있다.

Lubetzky는 “저자라는 의미는 저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작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서와 저작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는데, 도서보다 저작이라는 단어가 저작의 정의상 적절하게 사용된다. 두 번째는 저작의 “책임”이다. 이때 Lubetzky는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의 예를 들어 적절하게 이 책임 문제를 설명하였다.

Churchill은 George VI세에게 의회 개회사에 쓰일 초안을 가져다주었다. George VI세가 Churchill의 성명서를 의회 개회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Churchill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누구나 수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효하도록 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목록작성에 있어서 저작의 저자 또는 창조자로서 “표현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행위가 아

닌 저작의 개념으로 보았다.

Lubetzky는 기본저록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목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된 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부 목록의 구조는 도서목록 진열의 문제를 다룬다. Lubetzky는 목록 상 이해 가능한 수록 순서가 목록이 더욱 커지고 기입 규칙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그는 1939년 분리된 목록을 지지하는 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Cutter의 단순한 알파벳순 정리를 반대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ubetzky는 다음 4가지 방법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순수 알파벳순 파일저작은 목록의 구조를 간단한 저록의 “알파벳 순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목록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건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둘째, 수평적 분할은 자료의 출판날짜에 따른 목록의 분할이다. 셋째, 수직적 분할은 각각의 기능에 따른 분할이다.

Lubetzky는 이 수직적 분할을 이성적으로 성공할만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였다. 목록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기능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목록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수직분할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관계를 고려한 수직분할을 제안하였다. 이 수정된 수직분할은 기능에 따른 구분이 아닌 저록의 성질에 따른 구분으로 인명표목, 표제저록, 인명-표제저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분할은 지역명의 구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각 목록상 이러한 나라들과 주들, 도시들 등의 이름하에 자리한 인용들은 다른 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자료에

관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목록이용자는 더욱 우수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특별한 자료들에 대한 특별 목록의 사용은 특정 자료는 특별히 보호하고 서비스해야 한다는 인식의 일부로써 생겼다. 이용자가 특별부서의 소장 자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한다면, 특별목록은 일반목록에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 하나는 특별목록 상 모든 기록들을 복사하여 일반목록에 중복 기재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특별 목록에 표시된 각 저자와 주제 하에 일반목록인용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는 일반목록 이용자에게 해당 저자나 주제에 관한 추가적 자료가 표시된 특별목록 상 열거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도서관의 특별목록과 일반목록의 통합은 따라서 목록구성의 또 다른 측면이다.

제4부는 자동화의 잠재력은 기술이 목록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을 예견하였으며, 자동화의 결과는 필수불가결하게 기입의 질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Lubetzky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규칙과 원칙에 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함을 충고하면서, 컴퓨터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자동화의 잠재력을 알아챈 Lubetzky가 노년에 집중 연구한 주제의 첫 시작이다. 도서관 목록을 준비하는 것은 3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1) 도서관의 일반목록과 특수목록들을 구성할 필수적 기록들과 인용들로 구성된 목록작성

- (2) 각 목록 내에 기록들과 인용들의 적절한 파일 정리

- (3) 필요한 목록들의 기록들과 인용들로부터의 재생산과 이러한 목록들의 유지활동

이러한 활동 중에, 목록작성은 대부분 지적인 활동으로써 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정보 모으기와 구성하기를 포함한다. 파일정리의 경우 비전문적인 활동으로써 목록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정된 패턴 규칙을 따라 기록들을 집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적 활동으로써, 복제와 프린팅의 방식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목록들의 자동화가 목록의 기술적 측면인 목록의 재생산과 유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자동화의 잠재성은 필수불가결적으로 파일저작 활동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목록편성 과정 자체에도 연결될 수 있다.

목록의 자동화는 기계가독목록(Machine Readable Cataloging, 이하 MARC)의 발전에서 나타난 영향력이 Lubetzky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었다. 자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컴퓨터의 저장된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목록관리에 매우 큰 가치를 지니며, 목록의 미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 목록이 인쇄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목록의 목적은 더 쉽고 더 간단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한 저자의 여러 필명으로 출판된 저작들을 서지 통정하여 모든 저작들의 목록을 나타내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목록작성과정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저자가 식별되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제명 표목의 결정은 해당

주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 중 한 단어의 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온라인 목록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5부 “정보 조정의 서지학적 차원”은 Robert Hayes와의 협업으로 준비되었으며, American Documentation의 1969년 7월호에 독립적으로 출판되었다. Lubetzky는 정보 조정에 관련된 정보과학자들에게, 특히 기본저록과 전거제어에 관련하여 서지적 목록화에 대한 사서들의 생각의 중요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시도를 대변한다.

정보통제의 서지적 측면에서는 목록작성의 현대적 개념의 본질이 책과 정보, 책과 저작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 중 목록작성과 규칙들이 정보관리에 있어서 책과 저작을 구분하는 것에 더 많은 요구가 있다. 출판물을 특정 저자의 특정 저작의 표현물로 취급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자료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지학적 목록작성의 문제점들과 원칙들이 정보관리에도 관계되어 있다. 도서관의 자료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모을 수 있고, 구분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덩어리로 되어있지 않다. 반대로, 정보라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과 공동의 일의 일부로써, 그 정보가 발견되는 특정 저작들의 구조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있어 그것을 생성한 저작자들에 대한, 그 정보가 유기적 부분을 이루는 특정 저작들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저작들을 포함하는 자료들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저자와 저작, 자료들은 모두 함께 서

지학적 출처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의 결정적 측면들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Elaine Svenonius와 Dorothy McGarry는 “Lubetzky 생애 최고의 역작”이라고 평가하였다. “목록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Lubetzky 자체이다. 그는 이 연구를 그의 연구 중 최고로 여기며, 실제로 도서관 문헌 중 이처럼 읽기 즐거운 연구는 몇 되지 않는다.” “제공된 개괄은 원칙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만한 높은 수준의 일반화로 표현되어져 있다(Svenonius, 2001)”고 극찬하였다. 특히 제4부와 제5부의 내용을 읽어보면 Lubetzky는 현대 시대의 Panizzi와 같은 예언자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4. Lubetzky의 목록법 사상

Lubetzky의 도서관 사상은 전체적으로 Cutter의 도서관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Cutter의 목록법은 경험주의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으며, 경험의 결과를 규칙으로 성문화함으로써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Cutter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RDC에서 그가 최초로 집대성한 목록법의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제1원칙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습관 중시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주제명표목의 명확성과 일관성의 원칙이다. 제3원칙은 목록의 기능에 관한 원칙이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Lubetzky는 목록규칙의 목적과 기술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Cutter의 도서관 사상에 입각하여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Lubetzky의 도서관 사상을 기능주의, 실용주의, 이용자 편의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4.1 기능주의

Lubetzky 목록법의 전반적인 철학 기반은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목록규칙의 문제점이었던 형식적인 규칙의 나열을 목록의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원칙을 세우자는 주장은 기능주의적인 철학사상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기능(機能)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서는 “하는 구실이나 그 작용을 하거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이라고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기능주의는 19세기 말에 실체의 개념을 배척하고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대상을 기능적으로 파악한다는 유기체와의 비유에 기초한 이론이다. 기능주의는 구조주의에서 파생되어 발전하였는데,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의 차이점은 기능주의가 어떻게(how)라는 방법론에 관점을 두고, 구조주의는 무엇(what)이라는 대상에 관점을 준다고 구분하였다.

기능주의의 기본적 문제는 “어떻게 사회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가?”이다. 사회는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속되어 있는 체제이다. 그 다양한 사회과정은, 사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제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조화로워야 한다. 각 과정, 제도, 관행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의 구조나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능주의의 사회이론은 사회의 구성요소 또는 부분이 사회전체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

거나 이러한 요소 또는 부분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해석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설명은 행동에 대한 설명과 기능적 선결요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탈컷 파슨스(Talcott Parsons)는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적 유형유지에 의해 사회가 존속하는데 충족되어야 할 요구들을 규명하였다. 기능주의자들은 체제 내의 변동을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는데, 체제는 그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한다. 그것은 사회체계가 개인을 사회화하는 것이고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서 체제의 요구를 지지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합의의 전제이다. Parsons는 구조기능주의를 제창하여 사회구조를 기능적 요건의 충족·불충족으로 분석하는 이론으로의 단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능주의를 받아들여 목록에서 기능적 접근법은 Cutter가 RDC에서 목록의 목적을 8가지 기능으로 설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Ranganathan과 Lubetzky가 이를 수정하여 기능을 발전시켰고, ICCP에서 표목에 관한 국제적인 토의와 저자서명목록의 기능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목록의 기능적 접근법에는 표목의 기능, 기본저록의 문제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남태우, 1997).

Cutter의 목록의 목적은 3가지로 여기서 도출한 목록의 첫 번째 기능은 검색으로서의 기능이고, 저자, 서명, 주제별 검색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기능은 저작집단, 주제, 문헌의 유형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능은 서지적인 측면에서 판차나 문학 또는 주제에 따른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색 기

능을 8가지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Lubetzky는 기술과학이 발달하는 환경변화가 목록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체제인 목록이 변화하여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목록 철학은 목록의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환경 변화에 따른 목록 규칙의 변화는 목록의 목적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적인 요소를 그의 목록 사상에 적용하여 Panizzi부터 시작된 목록의 검색 기능을 보완하면서 서지적인 기능까지 추가하였다. Lubetzky는 CCR에서 밝혔듯이 목록에 관한 목적에 저작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저작과 도서의 구분을 통하여 저작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또한 저자에 개인저자, 단체저자, 정부간행물, 저자미상을 포함시켜 기술함으로써 저자성을 확장하였고, 무저자명 저작을 저자미상, 저자복잡, 저자가변성 저작물로 구분하여 ALA 목록규칙에서 사용하던 통일표제의 개념을 명시하여 AACR의 통일표제 사용에 영향을 끼쳤다.

Lubetzky는 AACR의 발표 전후로 그간의 목록의 검색 기능에서 서지적 기능으로 기능의 철학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ISBD를 서지기술의 주체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이런 기능주의적인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록의 목적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의 목록규칙을 분석하여 내제된 목적과 기술된 목적을 모두 규합하여 시대에 맞는 목적을 찾아내어 명시한 공은 기능주의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기능주의와 실용주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론

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4.2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1878년 Charles Sanders Peirce의 논문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pragmatism’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고, 1906년에서 1907년에 Columbia University에서 William James가 강의한 『실용주의(Pragmatism: A New Name for Some Old Ways of Thinking)』에서 확장되었다. pragmatism은 그리스어인 prágma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어원적으로 praxeis와 같다. praxeis는 행위 또는 행동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실용주의(實用主義)라 번역한다. 실용주의는 John Dewey의 『논리 이론 연구(Studies in Logical Theory, 1903)』의 기초가 되었고, Dewey는 이를 바탕으로 도구주의와 실험주의로 발전시켰다.

Peirce는 실험의 조작을 규정하고 지정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의해 실증되는 것이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증명이 되지 않는 관념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였다. James는 실용적인 가치와 실천적 성과를 중시하여 미국인의 개척정신을 철학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사상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도서관계에서도 실용주의가 대두되었다. Lubetzky는 1939년에 ‘목록의 위기’라는 논문을 통해서 분할목록의 장점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1940년 Joeckel은 『LC 연구보고서(1940)』에서 조문수의 증가로 목록규칙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목록규칙이 축소되

고 단순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Osborn은 1941년 '목록법 위기이론'을 발표하였고, 목록규칙의 실용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록담당자들도 원칙이 모든 상황을 위한 규칙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 중 Lubetzky와 Osborn은 실용적인 관점의 목록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ubetzky가 Osborn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반대로 Osborn이 Lubetzky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인 시류에 따라 서로의 글이 영향관계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학자의 공통적인 의견은 AA Code의 목록규칙이 지나치게 확장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이를 수정하여 간략하고 명확한 목록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목록규칙의 형식주의와 법률주의를 배제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목록법 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Cutter의 이용자 편의 우선주의에 입각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Osborn의 실용주의는 목록규칙이 도서관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에 합치되는 유용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용적인 목록법은 규칙과 결정된 사항이 조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목록규칙은 도서관의 목적과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에 맞는 수준의 목록규칙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록작업의 체계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Osborn은 목록법에 등급을 주고 도서관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록자의 판단과 실무적인 방침에 따르는 다양한 편목방법이 생길

것이며, 실용적인 목록작성이 가능하다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Osborn의 의견은 ALA 목록규칙 1941년 예비판과 1949년의 목록규칙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Lubetzky의 목록사상은 실용주의를 따르기는 했지만 보편주의에 입각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으로 Lubetzky는 목록법이 원칙을 세움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개별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Lubetzky는 목록법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9년의 ALA규칙은 증가된 목록규칙들이 모호하게 기술되었고, 중복된 규칙들의 나열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목록규칙간의 상호연관성과 일관성이 선행된 논리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장황한 규칙을 간소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록규칙을 명확히 하여 목록규칙의 개별적인 의미는 포괄성 있게 확장하고, 규칙 수는 축소하여 일반적인 문제점을 충족시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Lubetzky의 제안은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ICCP에서 채택되었다.

이런 Osborn과 Lubetzky의 실용주의적 목록사상은 Houten의 실용주의 바탕의 목록법 시대구분, Weintraub의 도서 목록방식의 기능, Kilgour와 Malinconico의 자동화 목록에 따른 접근법 등에 영향을 주었다.

4.3 이용자 편의주의

전통적으로 정보탐색과 정보이용은 도서관이 이용하는 도구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1970

년대 이후 도서관계에서는 시스템 중심의 목록 구조화 관점을 비판하였다. Douglas Zweigig와 Brenda Dervin은 “이용자 연구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목적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문헌정보학의 제조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Lubetzky는 이미 1939년에 작성한 『목록의 위기(Crisis in the Catalog)』에서 분할 배열 목록의 지향을 주장하면서 “근대적 목록은 매우 효율적인 반면에 또한 매우 복잡한 도구로서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것이다.”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검색 목록의 기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다음해 작성한 논문에서도 역시 “대문자 기입에 관한 목록 규칙의 작성 관행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목록자를 위한 것인지 알아보았다.”라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색을 위한 도구로써 목록의 목적을 공고히 했다.

이후 논문에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목록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Cutter 목록법의 제 1원칙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습관 중시의 원칙, 목록의 첫 번째 목적인 특정 문헌을 위한 목록의 검색기능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Cutter의 이용자 지향적인 목록법은 Dunkin(1969)에 의해 경험주의에 입각한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Cutter가 목록의 목적으로 주장한 이용자 편의성 사상은 Lubetzky에 의해 구체화 되어 목록법 기술 원리 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서지 기술의 이용자 편의성 원리는 『목록의 원칙: 기

술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목록편성 문제와 목록이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충족시켜야 할 요구조건들에 접근할 때, 목록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일부러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합의와 명확화의 부재는 역사적으로 목록의 특정된 목적과 방식에 대한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위하여 목록의 구조가 도서 배가에 있어서 이용자를 고려해야 하며, 저자와 저작에 관한 자료를 집중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이와 같은 목록 설계과정의 고려는 이용자의 검색 시간을 줄여주고, 이용자가 적게 노력하여 자료를 찾음으로써 투자 대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기능주의와 실용주의 역시 이용자 편의주의를 위한 사상으로 목록은 이용자의 편의성에 맞추어 발달하였다. Lubetzky가 주장한 목록의 과밀성,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간결하고 유용한 목록의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목록자 및 도서관 직원이 아닌 이용자를 고려한 이론이다. 저자가 추구하는 사고과정을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록의 설계를 주장하였다.

Naudé에서 시작된 공개와 보편적인 도서관 사상은 Liebniz의 보편주의적인 도서관 사상으로 이어졌다. 보편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 시하는 이론으로 개인의 자산을 공개하여 전체에게 이익이 되게 하였다. 이때부터 재산목록이 아닌 검색목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Panizzi 역시 목록의 목적이 검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Panizzi부터 이어진 이 사상은 Lubetzky를 통해 확장되어 Svenonius가 발전시켰다. Svenonius (1989)는 이용자 편의주의를 서지적 기술목록의 원칙에 적용하였다. 그는 서지어를 설계하기 위한 원칙중 하나로 “기술할 때 결정은 이용자의 관점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정의를 내렸다. 서지어를 설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편의성 원칙(Principle of user convenience)
2. 표현성 원칙(Principle of representation)
3. 충분성과 필요성 원칙(Principle of sufficiency and necessity)
4. 표준성 원칙(Principle of standardization)
5. 통합성 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

이용자 편의성 원칙은 이용자 관점에 맞추어 작성된 서지 기술을 필요로 한다. Svenonius는 Cutter의 이용자 편의주의를 차용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Cutter는 ‘목록작성자의 편리 이전에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해야한다.’며 목록의 필수적인 원칙으로 주장했다.” 전통적인 도서관은 학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Panizzi는 책자형 목록을 위한 규칙에서 이런 정신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Cutter의 목록은 정보에 대한 새로운 주제 접근을 시도했으며, 미국에서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다. 알파벳순 주제목록을 통해 학자가 아닌 일반적인 이용자가 알고 있는 명칭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편적인 목록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미국의 목록규칙은 Lubetzky를 통해 발전

하여 AACR로 이어졌으며, AACR은 미국식의 목록규칙이 아닌 세계 공통적인 목록규칙으로 받아들여졌다. Lubetzky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목록규칙 설계를 위해 이용 행태 분석을 행했고, 이용자가 검색에서 요구하는 저자별 저작, 표현형태 등을 집중하는 구조를 연구하였다.

AACR2R은 “확실히 확인된 이름의 형식을 저자의 저작에서 80%로 알려진 형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 이용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하기 때문에 어휘 통제가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 환경이 자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의 전거통제가 아닌 접근 통제(access control)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런 결과로 예측된 두 가지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매우 제한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매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제한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Bradford의 분산법칙에 따라 자주 이용되는 순으로 검색된 내용을 분류하여 검색된 내용을 도출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주의 사상은 Cutter에서 시작되어 미국식 도서관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저작과 도서의 구분, 전거통제, 접근 통제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목록학의 위대한 이론가인 Lubetzky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하였다. 생애와 업적, 저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수행과정을 통해 Lubetzky의 도서관 및 목록법 사상을 도출하여 현대 목록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Lubetzky의 저술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에 입각한 목록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목록규칙의 역할을 서지학적 도구로 재조명하고, 목록규칙의 당위성, 포괄성, 망라성, 연계성, 간결성 등을 주장하였다.

셋째, 저자의 범위를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로 확장하였다.

넷째, 저작과 표현형의 의미를 구분하여 FRBR과 RDA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Lubetzky의 도서관 및 목록법 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Lubetzky는 기능주의적인 요소를 그의 목록 사상에 적용하였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변화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록규칙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록의 목적을 명시하여 변화하는 목록규칙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원칙을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도서관의 자동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록규칙의 원칙을 준수한 목록규칙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둘째, Lubetzky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목록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록법의 경제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목록규칙간의 상호연관성과 일관성이 선

행된 논리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런 실용적인 원칙을 세워 목록규칙의 개별적인 의미는 포괄성 있게 확장하고, 예외사항이 포함된 조문을 축소하여 일반적인 문제점을 충족시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셋째, Cutter의 이용자 편의성 사상을 계승하였다. Naudé에서 시작된 공개와 보편적인 도서관 사상은 재산목록에서 검색목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검색목록의 목적을 세분하여 Cutter와 Lubetzky는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추구하였다. 이런 사상은 Svenonius에게 계승되어 서지기술 설계 원칙에 반영되었다.

넷째, 목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목록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정의하였다. 특히 식별을 위하여 도서와 저작의 개념을 구분하였고, 저작의 개념을 저작에 책임을 가진 개인과 단체로 확장하여 단체저자를 표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목록의 목적이 저자명 기본저록은 한 저자의 저작을 집중시키는 기능과 저작의 다양한 관들을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저작이 도서관 목록에서 서지적 관계로 인해 유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Lubetzky가 주장한 목록 원칙은 파리원칙에 채택되어 현대 목록법의 근간이 되었으며, AACR, FRBR, RDA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와 같이 Seymour Lubetzky는 목록의 단순성, 통일성, 연계성 등의 성격을 구축하여 국제적이고 표준화된 목록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목록 규칙의 기능의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목록에서 사용하는 저작의 개념을 최초로 성문화하여 현대적인 의미로 정립한 공이 있다.

Lubetzky의 목록 연구방법과 목록법사상, 목록에 관한 그의 제안은 20세기의 목록규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 연구를 통하여 미래 목록규칙의 발전방향과 온라인 환경이 목록에 끼치는 잠재성 등을 고찰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원칙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고, 원칙의 필요성을 기능주의, 실용주의 및 이용자 편의주의에 바탕을 두고 펼쳐나갔다. 이런 Lubetzky의 업적은 현대 목록

학의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Lubetzky의 연구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 목록법의 문제점과 OPAC에서의 원칙의 부재를 조사하여 국내의 IT 기술의 발전, 목록 환경의 변화, 이용자 연구를 통하여 목록법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 목록법의 발전이 세계 목록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환경에 적합한 목록법의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창하 (2007). 서양 목록법 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남태우 (1997). 目錄法 理論에 대한 研究. 情報管理學會誌, 14(1), 223-254.
- 심의순, 손문철 (1984). 영미계목록규칙 발전의 사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1, 143-173.
- Biswas, S., & Rath, D. S. (2014). From Maunsell to Lubetzky: A journey back in search of the root of FRBR among the cataloguing codes of Anglo-American origin. *Ann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61, 7-14.
- Bruin, Daily. Paris Principles' developer, UCLA professor dies at 104. [cited 2015.6.24]. <http://dailybruin.com/2003/04/27/paris-principles-developer-ucl/>
- Campbell, D. G., & Fast, K. V. (2004). Panizzi, Lubetzky and Google: How the modern web environment is reinventing the theory of cataloguing. *The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La 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Bibliothéque*, 28(3), 25-38.
- Carpenter, M. (1998). Seymour Lubetzky as a teacher of catalog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5(2-3), 181-190.
- Cloonan, M. V. (1998). Musings on cataloging and information science in appreciation of Seymour Lubetzky. *The future of cataloging: Insights from the Lubetzky symposium: April 18, 199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nnell, T. H., & Maxwell, R. L. (2000). *The future of cataloging: Insights from the Lubetzky symposium: April 18, 199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Dewey, J. (1903). *Studies in logical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nkin, P. S. (1969). *Cataloging U.S.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orman, M. (2000). Seymour Lubetzky, man of principles. *The future of cataloging: Insights from the Lubetzky symposium: April 18, 199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T. H. Connell, R. L. Maxwel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2-21.
- Grieg, E. (2003). Seymour Lubetzky, 1898 - 2003.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52(2), 185-186.
- IFLA (1971).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October,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t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ing.
- Kent, A., & Williams, J. G. (1988). *Communication theory: Sense-making*. Encyclopedia of microcomputers. New York: M. Dekker.
- Lubetzky, S. (1939). Crisis in the catalog. *Catalogers' and Classifiers' Yearbook*, 8, 48-54.
- Lubetzky, S. (1940). Capital punishment for catalogers? *The Library Quarterly*, 10(3), 350-360.
- Lubetzky, S. (1953).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A critique of the ALA rules for entry and a proposed design for their revision. Prepared for the board on cataloging policy and research of the ALA division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Processing Dept., Library of Congress.
- Lubetzky, S. (1960). *Code of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y. An Unfinished Draft for a New Edition of Cataloging Rul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n.
- Lubetzky, S. (1969). *Principles of cataloging: Final report*. Los Angeles: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 Lubetzky, S., & Hayes, R. M. (1969). *Principles of cataloging. final report, phase I: Descriptive cataloging*. Los Angeles: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 Osborn, A. (1947). *Cataloging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1940-1947. Actes du Comité International des Bibliothèques, 13me Session, Oslo, 71*.
- Peirce, C. S. (1878). How to make our ideas clear. *Popular Science Monthly*, 12, 286-302.
- Pettee, J. (1936).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ary Quarterly*, 6, 270-290.
- Ranganathan, S. R. (1938). *Theory of library catalogue*. Madras.
- Svenonius, E. (1989).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San Diego: Academic Press.
- Svenonius, E. (2002).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남태우, 이명규, 김상미 공역 (2002). *정보조직화의 지적기반론*. 군포: 한국디지털

도서관포럼.

- Svenonius, E., & McGarry, D. (2001). Seymour Lubetzky: Writings on the classical art of cataloging.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U.S. Library of Congress Librarian's Committee (1940). Report to the librarian of congress on the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 UCLA Newsroom. Seymour Lubetzky, UCLA professor emeritus and pioneer in cataloging, dies at 104. [cited 2015.6.24]. Retrieved from <http://newsroom.ucla.edu/releases/Seymour-Lubetzky-UCLA-Professor-4141>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5). Foreign librarians will attend seminar at UCLA. UCLA Librarian, 18(3), 17.
- W. James, Pragmatism. [cited 2015.6.24]. Retrieved from <http://iws.collin.edu/amiller/William%20James%20-%20Pragmatism.pdf>
- Yee, M. M. (1998). Lubetzky's work principle. The future of cataloging: Insights from the Lubetzky symposium, April 18, 199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Kim, Chang-Ha (2007). Study on the theory of western catalog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ung-Ang, Seoul, South Korea.
- Nam, Tae-Woo (1997). A study on theory of catalog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formation Management, 14(1), 223-254.
- Sim, Ui-Soon, & Son, Mun-Cheol (1984). A historical study on the american-british catalog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1, 143-173.
- Svenonius, E. (2002).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translated by Nam, Tae-Woo, Lee, Myoung-Gyu, & Kim, Sang-Mi. GunPo: Korea Digital Library Forum.